

雄壯했던 회암사지의 위용 한눈에

회암사 천년의 역사 한곳에 담은 전시관 착공식

양주시는 3월6일 올점동 299-1번지 일원에서 회암사지 전시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공에 돌입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임충빈 양주시장, 서효원 경기도 행정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발과 순으로 진행 됐다.



시는 지난 2001년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대한 수차례의 자문회의와 설계심사를 거쳐 지난 해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에 따라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회암사지 전시관 건립공사는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건축 연면적 3천308㎡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게 되며

공사비는 총91억원이 투입 완공은 2009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시설로 1층에는 회암사지의 역사·위상·변모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실, 영상실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발굴유물 등을 통해 회암

사의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실, 기획전시실 등이 자리하고 지하에는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만들어 진다. 특히 회암사의 창건과 폐사에 이르는 역사는 물론이고 회암사의 규모를 확

인할 수 있는 모형을 축소 복원하여 건물에서의 주요 생활상을 다 큐멘터리 영상물을 소개하게 되며 도자기, 기와 맞추기 등 전통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등 회암사지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고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임충빈 양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암사지 유적·유물은 동북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하고 독특하여 회암사지 유적을 양주의 가치에서 한국의 가치, 세계의 가치로 인정받는 문화유산으로 가꿔 나가겠으며 전시관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시 및 프로그램을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지역마을 봄맞이 대청소 軍이 앞장”

육군 26사단 백호대대 자매마을 대청소 지원활동



육군 26사단 백호대대 장병들이 3월3일 자매마을인 양주시 남면 경신리 마을 봄맞이 청소예찰을 걸어 불이그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장병들은 약 20km에 달하는 마을주변과 도로,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으며 이날 수거한 쓰레기는 총 113마대(1톤 트럭 4대 분량)에 달했다. 남면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참가해 민·관·군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경신리 마을 조우상 이장은 “대청소를 하려고 해도 마을에 청년들이 없어 임도가 나지 않았는데 자매부대 장병들이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백호대대 강신우 대대장은 “군의 사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번 마을 대청소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작은 일이지만 국민의 군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구축

양주시 2007 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3월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충빈 양주시장을 비롯한 각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구축을 위한 2007년 자원봉사센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 앞서 임충빈 양주시장은 우수 봉사자인 하안동봉사회 정태영 회원에게 감사패를, 백석과출소 하명택 소장에게 도시사상을, 가족봉사단 단장 김성원 외 2명과 의정부고등학교 권일새 학생 등 3명에게 양주시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설명회는 주민생활지원과 이점주 서비스 연계담당의 재해대비 자원봉사 지휘통합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행복한 대한민국 주민생활 서비스' 주제의 동영상 시청과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성과 및 2007년도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등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전

문자원봉사 대학, 단체별 맞춤형 보수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아버지가 지킨 안보,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육군 26사단 불사조 부대, 장병 부모 초청 병영체험 실시



육군 26사단 불사조부대는 2월27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부대원들의 아버지를 부대로 초청, 병영체험행사를 가졌다. 부대에 도착한 아버지들은 행사 진행계획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에 소대대장 측구시합에 참가하여 아들과 함께 맘을 흘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식사 후에는 총성클럽, 노래방, 사이버 지식 정보방 등을 이용하며 변화된 군대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아들과 함께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이 군 복무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군 선배로서의 노하우를 아들에게 전수하기도 했다. 둘째 날, 장비 소개 및 전자탐색, 차량정비 등 군대에서 아들의 평소 일과를 체험해보는 시간에서 아버지들은,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는 아들의 솜씨가

대견스러운 듯 헌신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아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김현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45세) 씨는 “변화된 군의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보고 나니 이전 아무 걱정이 없다”며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부대장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현준 이병은 “우리 아버지가 지켰던, 그리고 사나이끼리의 무언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안보를 이제는 내가 담당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병들이 더욱 단결되고 사기가 고양됐다”며 “지속적인 부모초청 행사를 통해 장병들의 기(氣)를 살리고 건강한 군생활을 유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8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공모

양주시 4월30일까지 작목반 대상으로 신청받아

양주시는 해외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우수 농 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08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2007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우수경영체인 작목반이 해당되며, 지원 규모는 당해년도 총사업비 30억원 이내로 가급적

공동시설을 우선지원하고 개별시설은 불가피할 경우 상한선을 두어 가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시는 2006년까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친환경시설채소 산지유동 현대화사업, 양주골 한우명품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72억5백만원을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연차별사업인 고품질산발효비공장설립 외 1개 사업에 1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民·官 상생 대안 마련해야

농협중앙회양주시지부 조합원 교육 실시

농협중앙회양주시지부(지부장 김학현)는 2월27일 양주시 선진농업경영인 5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대학에서 2007년 양주시 농업의 현안과 농업의 지역역할에 대해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김학현 지부장은 올해 첫 부임하여 경제사업조직을 개편하여 양주지역 품목특화를 위한 양주골 딸기와 애호박 연합 판매사업을 접목시켜 소득작목 개발에 중점적 추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선진 농업경영인과 함께 적극적인 지역농정사업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 위남광 교육담당장은 21세기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갖고 양주시 지역농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농업이 민·관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단체전 1위 시흥시 소래정, 2위 양주시 무호정

제14회 경기도협회장기 궁도대회 양주 무호정에서 개최

경기도 궁도인들의 잔치인 제14회 경기도협회장기 궁도대회가 지난 3일과 4일 2일간 양주시 남면 소재 무호정에서 개최됐다.

올해 14번째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시흥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1천여 궁사들과 임충빈 양주시장, 원대식 시의회의장, 류명희 경기도 궁도협회장, 이종영 양주시 궁도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 졌다. 단체전과 일반부 개인전, 노년부와 여자부 등 4개 종목으로 나누어 개최된 이번 제14회 경기도협회장기 궁도대회에는 양주 무호정을 비롯한 20개 시·군 60개정 1천여명의 궁사가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대회에 앞서 류명희 경기

도 궁도협회장은 궁도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파주시 금호정 이상구 고문에게 감사패 전달과 파주시 화석정 김영주 사두 의 22명에게 인준패를 전달했다.

임충빈 양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번대회에 참가하시기 위해 우리 양주시를 방문해 주신 경기도 시·군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을 18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궁도대회에서 단체전 1위는 시흥시 소래정, 2위는 양주시 무호정, 3위는 안산시 반월정이 차지했으며, 남자 개인전 1위는 광명시 윤학정 이영태씨가, 2위는 용인시 용무정 서효정씨, 3위는 군포시 군포정 김범호씨가 차지했고, 노년부 개인전은 파주시 광무정 장삼용씨가 시흥시 소래정 정규선씨가 시흥시 시흥정 천인계씨가 여자 개인전은 무호정 서효녀씨가 영예의 1위를 펼쳤고 광택정 신한순씨가 2위를 부천시 부천정 윤미암씨가 3위를 차지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어디서나 하루 만보걸기로 건강하게

양주시 보건소, 주민 대상 만보클럽 1기 선포식

양주시 보건소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도 보건소 중점과제를 운동부담 사업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만보(萬步)클럽 1기 선포식'을 가졌다 3월4일 시청 대회의실과 건다광장에서 이루어진 1기 선포식에는 임충빈 양주시장을 비롯한 만보클

럽 참가자 등 200여명이 참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루만보걸기”란 주제를 가지고 걷기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만보클럽 1기 등록자 228명중 최고령자이신 김희관(78세)어르신과 송준섭(8세)군이 대표로 나와 만보클럽의 일원으로 충실히 이행 할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만보클럽 운영 후 검사결과



체지방 감량률이 가장 높은 우수팀에게는 보건소 무료 독감 접종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1-820-2739 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받을 수 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제88주년 가래비 3.1운동 追念式

3.1만세운동 추모공원을 올 상반기 중에

양주시는 제8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광적면 소재 가래비 3.1운동 기념비 및 만세배미에서 임충빈 양주시장, 원대식 시의회의장, 조태훈 가래비 3.1운동 기념사업회 회장, 류종열 보훈지청장, 이홍일 양주문화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적청년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3.1절 기념행사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조상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우리 양주지역 가래비에서 일제에 저항하다 희생하신 백남식, 이용화, 김진성 열사 등 순국선열 40명의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뜻을 되새기며 김경식 광적청년회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 임충빈 양주시장과 조태훈 기념회장의 추념사와 25사단 군악대 연주에 맞춰 시립합창단의 삼일절 노래와 모든 참석자가 한데 뭉쳐 만세 삼

창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의 상황을 재현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부터 만세배미까지 17기로 이르는 거리를 참석한 모든 시민이 다 함께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보하는 것과 일본군 총탄 앞에서 도 굳건히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다 일본군이 쏜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 연출할 때는 시민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임충빈 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기록한 희생 생을 하신 순국선열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빌고 3.1운동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후손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2억5천만원 예산과 부지를 지원 3.1만세운동 추모공원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봄맞이 신천 정화활동 대대적 전개

동두천시 자원봉사단체 군인 등 1,000명 참여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김경자)는 3월6일 센터 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 군인 등 70여개 자원봉사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7년 봄맞이 신천 정화활동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봄맞이 신천 정화활동은 3월22일 오전 10시부터 양주시 경계에서 연천군 경계까지 11.9km 구간에 대한

다고 강조하면서 본 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깨끗한 동두천을 만드는 시민참여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3월22일은 세계물의 날로 신천이 시승객 이전에는 동두천시민의 상수원이었으나 신천이 오염되어 상수원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물의 소중함을 함께 군인 1,000명 등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경자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봄맞이 신천 정화활동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급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해 나가야 한

환경변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갖고 양주시 지역농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농업이 민·관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동두천시 공공근로사업 모집

동두천시는 3월5일부터 16일까지 2007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부터 60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실업자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다. 또 구직 등록을 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 대학 재학생 또는 300명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 1500명 이하 농지소유자 중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도 신청

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대학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사무소로 하면 되고, 선발될 경우 4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공근로2단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